

산화철 생산도 민간기업이 주도

중국, 1990년대부터 민영화 급진전 ... 기본적인 경쟁력은 한계

중국의 산화철 산업은 1990년대 이전까지 국가자본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으며 국영기업 생산능력이 전체의 75% 이상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민간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1990년대 말 이후 중국 동부해안 지역의 민간기업들은 더욱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생산구조를 저급 그레이드에서 중급 그레이드로 전환시켰다. 또한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민간기업들의 전체 생산능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글로벌기업들의 중국 진출로 전체 생산능력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산화철 생산기업 구조 및 분포는 더욱 다양해졌는데, 여러 소유구조의 기업들이 공존하게 됐으며 핵심 생산기업들은 여러 소규모 생산기업들과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그러나 매출액 1억원 이상의 몇몇 생산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은 연평균 매출액이 8000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어 중국 산화철 생산기업들의 경쟁력 면에서 뒤쳐진다는 것으로 의미하며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산화철 시장이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업들의 연평균 최대 매출액이 1억원 수준을 넘어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규모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산화철 생산기업들은 연평균 매출액 2억원 이상이 돼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산화철 생산기업들은 최근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산화철 원료를 둘러싼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철강시트 공급부족으로 철강시트 가격이 톤당 2100원으로 치솟았으며 이에 따라 산화철 생산기업들의 마진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전력, 용수, 석탄, 질산, 황산, 액체 가성소다, 운송수단 및 인재확보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산화철 산업은 극도의 분쟁상태에 놓여 있다.

경영전략에서 유리한 핵심 생산기업들은 이미 리드자리를 확보한 상태로 자원 확보 및 비용감축을 위해 전력, 질산 및 석탄 공급기업들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산화철 분야의 생산능력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보호, 자원 및 금융위기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산화철 생산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치열한 판매경쟁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은 경쟁기업들의 생산능력 확대 대열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낙오될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반대로 경쟁기업들과 발맞춰 과도하게 생산능력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 면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최근 진퇴양난에 직면해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이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생산능력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급격한 생산능력 확대는 결국 중국 산화철 시장의 생산 집중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화학저널 2004/10/01>